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2007년도 열린 충남 겨울호가 밝힌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먼저, 책자 발간을 위해 노고 큰 아끼지 않으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난 한해도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그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이고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고유가와 원유하락, 원자재 상승이라는 삼중고를 뚫고 대망의 수출 380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억 7천 2백만 불의 외국자본과 288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도약하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 도청도시와 연계하는 성장동력을 발판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4대 개발권을 설정해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에 힘입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 정밀화학, 절강, 반도체 및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안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물가와 실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투자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는 충남개발 공사를 본격 출범시키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도내 전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규모는 18개 지구에 2천 182만평이 개발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만 7조 3천 9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업이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주요사업을 독과점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개발 지연과 공익성 비효, 이익금 역외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보완하고 특히 행정도시 배후 건설과 도청 이전 등 도내의 개발 수요 급증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충남개발공사 설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공사는 설립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12월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장을 임명하고 금년 1월 말 임직원을 채용한 후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공사가 출범하면 도청이전 사업과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노내 주요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수익사업 창출을 통해 일약한 지방 재정력을 간접적으로 보충해 주는 기능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지난 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통상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목표를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450억 불로 정하고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대비 수출유망업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중 유망중소기업 10개 사를 선정하여 해외시장조사 및 컨설팅, 마케팅, 사후관리 등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BRICs, 중동, 아프리카 등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환율불안에 따른 수출 보험료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500만 불 미만 수출업체에서 600만불 미만 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회의 실천력 담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경제활련화 대책 회의들 분야별, 기관별로 확대 개편하여 월 2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및 외자유치를 전개해 나가고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도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도가 이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200만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이해,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열린 충남 거울호 반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우리 도정과 도민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지사 이완구

이완구